



* 등급정보 (닭고기) *

▷ 20개 업체에서 생산한 3백34만6천수에 대한 등급판정 결과, 1*등급은 1백17만6천수(35.1%), 1등급은 1백98만3천수(59.3%)를 차지, 전월(20개 업체, 3백59만4천수)대비 24만8천수(6.9%) 감소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 및 출현율

(단위 : 수, %)

구분	등급판정수수	품질등급별 출현현황		
		1*등급	1등급	2등급
'09년 1~7 월	20,215,207	7,018,875	1,178,193	1,414,400
	(100.0)	(34.7)	(58.3)	(7.0)
'09년 6월	3,594,044	1,249,177	2,163,791	181,076
	(100.0)	(34.8)	(60.2)	(5.0)
'09년 7월	3,345,678	1,175,288	1,983,462	186,928
	(100.0)	(35.1)	(59.3)	(5.6)

* 축산뉴스 (닭고기) *

↓ 한국산 닭고기 홍콩 수출 재개

지난해 4월 전북 지역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중단됐던 홍콩으로의 닭고기 수출이 지난 8월 9일부터 수출이 재개됐다. 이번 홍콩 수출 재개는 지난해 8월 15일자로 농림수산식품부가 국내 고병원성 AI 청정 선언과 동시에 홍콩 등 주요 수출상대국에 한국산 닭고기 등의 수입재개를 요청하여 성사된 것. 지난 7월 9일 이후에 한국에서 도축·생산된 가금육 및 그 생산물인 경우 홍콩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올 6월 현재 닭고기 수출실적이 있는 국가는 베트남, 북한, 캄보디아 등 3개국이며, 열처리 가공된 삼계탕은 현재 홍콩 등으로 수출 중이다. 6월 현재 삼계탕 홍콩 수출물량은 모두 584톤, 247만2천불이다.

↓ 제주 교래마을 '토종닭 유통특구' 지정

제주시 조천읍 교래마을이 '토종닭 유통특구'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먹거리 관광명소 육성차원에서 돈 버는 축산물 유통특구를 만들기 위해 교래마을을 1호 특구로 선정했다고 지난 8월 10일 밝혔다. 교래마을은 1970년대부터 토종닭을 키워왔으며 30여개 토종닭 음식점이 영업

하고 있다. 제주도는 1억5천만원을 지원, 9월 중 교래 토종닭 마을 유통특구 지정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역사적 유래와 맛 기행, 업소 소개 등을 담은 홍보물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마을 입구에는 대형 토종닭 조형물도 설치한다. 제주도는 월 1회 이상 관광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토종닭 마을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 여름 성수기 불구 닭고기 수입 감소

여름철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닭고기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7월 닭고기 수입량은 5천471톤으로 전월 6천779톤보다 19.3% 줄어 들었다. 지난해 동기 9천555톤보다는 무려 42.7%나 감소한 수치다. 국가별로는 브라질 2천768톤으로 가장 많이 수입됐다. 미국 2천488톤, 덴마크 216톤이 뒤따랐다. 부위별로는 다리 4천400톤, 날개 909톤, 가슴 114톤, 전체 육 48톤이 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출처 : 축산뉴스>